

콘텐츠 중심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이병민*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yurifin@konkuk.ac.kr

1. 창조경제의 발전과 문화도시의 발전

21세기는 기존의 제조업 중심 경제의 발전에 이어 창의력·상상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창조경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발전 키워드 또한 소위 ‘포드주의’로 대변되던 대량생산에서 정보, 혁신, 지식을 거쳐 ‘상상력’이 중심이 되는 창조경제라는 화두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경제의 패러다임 기저에는 ‘문화’와 삶의 중요성이 기반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문화산업의 발전방향과도 연관이 있다.

이는 제조업에서 감성기반 창조력과 다양한 문화콘텐츠시대로의 진화를 의미하는데, 창의성과 콘텐츠 시대로의 이행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소비자이자 생산자, 수요자인 국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문화적 삶의 질이 지역과 공간을 배경으로 점차 중요해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서울대학교 문학박사(지리학 전공),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사, (전)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장
- 창조적 장소브랜딩 전략을 위한 연구(2013), 창의적 대학의 역할을 통한 지역발전의 특징 연구(2013), 대학에서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문화콘텐츠 교육 개선방안 탐색(2013), 소셜네트워크 리소스의 적용과 활용(2013)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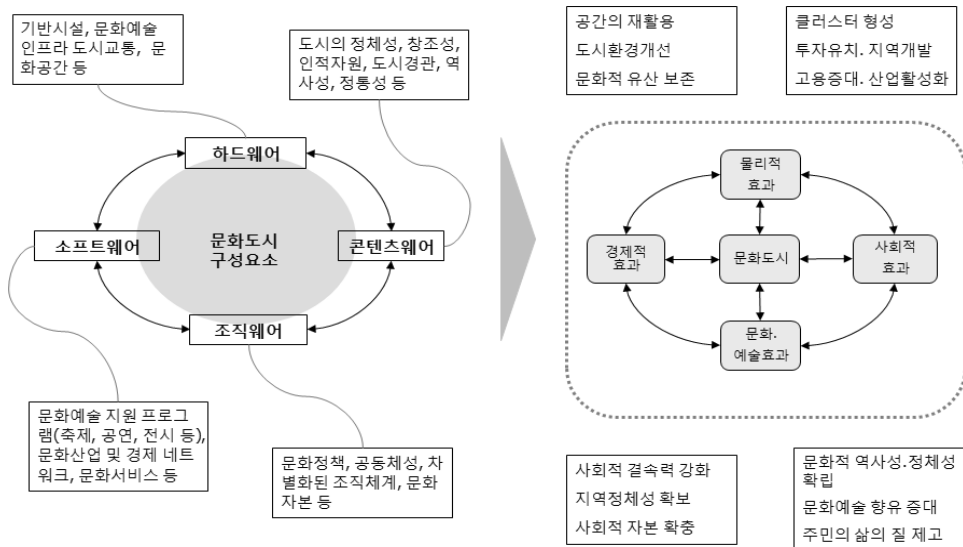
특히, 문화도시와 관련하여 ‘콘텐츠’를 고려한다는 것은 발전인자로서의 ‘창의성’을 고려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다양한 도시의 보유 콘텐츠가 산업화할 경우 타 산업들보다도 공간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통한 문화적 소양의 근거리 네트워크이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도시의 중심이 되며, 주축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는 도시의 집적성을 높이면서, 단순한 수익구조 창출 이외에도, 브랜드 가치제고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하며,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전통문화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창출하고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산업을 통해 보자면, 지역경제에서 대표적인 창조산업인 문화산업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통해 타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창조적 환경과 관련하여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문화도시’ 내지 ‘창조도시’의 경우는 문화를 기반으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양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Florida, 2002).

한국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어 나갈 핵심을 ‘(창조)인재’라고 말하며, ‘사람중심’의 성장,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4.0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제로서 창의성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이 동시에 한국적 발전전략의 트렌드가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정보화에서 이제는 창조화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균형적인 발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 하는 글로벌시대의 지역으로 보자면, 매우 중요한 화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원고는 전체적이고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관계성이라는 측면에서 문화도시가 갖추어야 할 핵심 콘텐츠 관련,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과 지역의 선순환을 위한 가치사슬 특성의 강조,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과 네트워크 지역 간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생태계의 관점에서 문화와 관련한 공간의 특성을 거론하고,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알아보고자 하며, 기존의 문화도시 논의와 구분하기 위해 ‘창조적 문화도시’라고 명명하고, 방향성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히 서울시에서의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콘텐츠 중심 문화도시의 특징

문화도시는 그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문화도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콘텐츠와 산업, 하드웨어로서의 시설, 소프트웨어로서의 프로그램,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운용하는 주체, 문화인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최근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과 산업기반 콘텐츠들의 풍성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의 역사와 전통, 최근의 산업발전으로 인한 성과물들의 창출, 새롭게 대두되는 공공디자인과 도시브랜드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콘텐츠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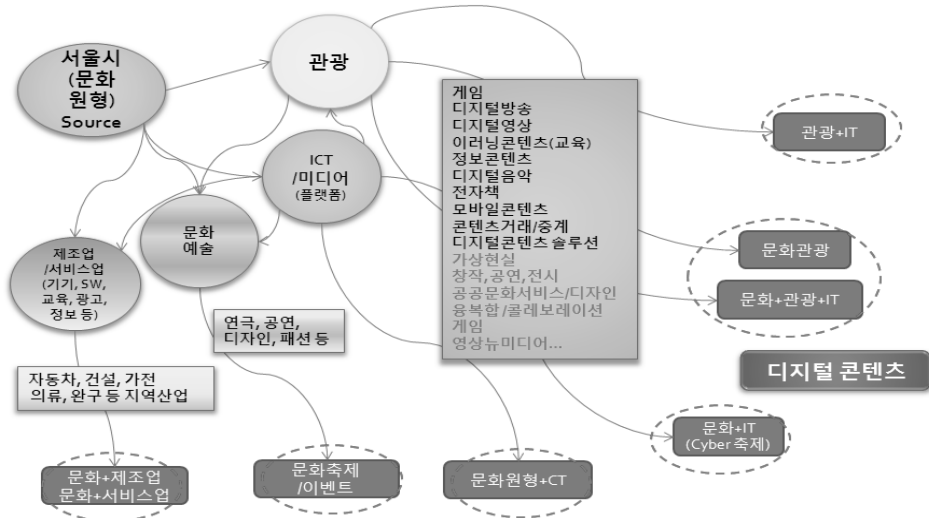
자료: 이병민(2012)

<그림 1> 문화도시의 구성요소 및 관련 효과

결국, 하부구조로서의 다양한 정책 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과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기존 도시들에게 가장 부족하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하드(hard)'한 기반시설 속에 채워지는 '소프트(soft)'한 문화적 요소들과 콘텐츠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하드인프라는 그릇이고, 그 안에서 소프트인프라(부가가치)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를 사례로 보자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같은 다양한 시설물들과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이러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운용하는 조직웨어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다(그림 1). 이때, 하드웨어는 시설, 인프라, 다양한 문화적 향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분위기 등이 관련되며,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소프트웨어는 하이서울페스티벌 등 축제,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적 예술 활동과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측면과 문화예술적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직웨어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제도 및 조례 등 지원이 관련될 것이며, 서울시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적 성장 촉진 등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때 생태계를 연결시킨다면, 공동체 성이나 참여와 개방, 소통과 협력이 관계된다. 콘텐츠웨어는 인적 자원의 창의적 활동 및 도시의 창조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서울시의 창의적 활동과 역량, 문제해결능력 등이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콘텐츠의 창작, 기획에서 제작, 개발, 생산이 선순환구조를 거쳐, 유통, 서비스되고, 서울시라는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공간 내외의 소비와 재생산의 외연확장 등을 거치고, 콘텐츠와 문화예술 뿐 아니라, 관광, IT, 제조업, 서비스업 등과 연관 맺으며, 다양한 파급효과를 생산하는 순환시스템을 발전할 것이다. 이에 보다 부연하자면, 다양한 분야의 파급효과는 단위지역으로서의 서울시라는 창조적 문화도시라는 공간에 있어 여러 분야와 관련이 있다(그림 2).



자료: 이병민(2012)의 내용을 일부 수정

<그림 2> 문화도시 연관분야의 다양한 파급효과

3. 창조적 문화도시의 발전방향: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창조적 문화도시 발전방향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서울시내에서 콘텐츠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콘텐츠 생태계가 중심이 되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의 창의적 자산을 확충하고, 구성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교육오픈 소스화 등 글로벌 시대 개방형 지식공유체계가 더욱 확산되는 가운데, 창조적 문화도시가 갖고 있는 암묵지의 자산화를 피하고, 서울시내 창조적 계급을 양성하기 인적 자원의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 권역 내 콘텐츠 교육관련 대학과 산업현장의 미스매치 해결에 주력하며, 전문적 콘텐츠의 교육가의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마련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콘텐츠 리터러시 차원의 창조적 문화도시 콘텐츠 전문 멘토 양성 및 체계마련, 서울시 전문 콘텐츠 전문가 양성 및 지역 대학 전문 강사, 교수급(faculty) 인력의 양성 및 배출, 인력풀의 마련에 주력하는 등의 노력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선순환구조를 염두에 둔 서울시내 멘토와 체계적 재교육 구조의 시스템화 및 1인 창조기업 등 자생적 교육 및 산학협력 구조의 마련이 요구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회생태계(social ecology)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창조적 문화도시가 갖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특징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와 지역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생태계 구성요소들의 연계망 확충 및 사업, 서울시 특화문화상품 발굴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특성과 역사성, 특히 도시의 정통성을 고려하는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 상호의존적인 서울시 문화자원들의 연계성 확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예술-관광-체육 등 서울시 기반의 다양한 연계망 구축 및 스토리텔링 기반 명품 문화상품의 개발 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며, 제조업, 서비스업 등 기존 산업체계 내 콘텐츠 투입을 통한 융합적 가치실현 및 부가가치 창출 통한 새로운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시 융합콘텐츠 발굴 지원 사업 등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의 연계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콘텐츠의 가치사슬 기

반 기능적 선순환 구조 마련 및 역내시장 활성화를 위해 걸림돌(bottleneck) 현상의 제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기존 문화산업정책 등의 성과물 및 서울시 공공자원을 최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메타콘텐츠 추출 및 활용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서울시 현실을 고려한 가능한 정책과제를 강구해 본다면, 1인 창조기업, 프로슈머, 전문가(기획, 창작)-제작(중소기업)-유통(지역 외 대기업)-소비, 지원(공공) 등 다양한 가치사슬별 협력 체계 및 리쿠르팅을 통한 협력프로젝트(collaboration project)의 마련, 서울시 상징 킬러콘텐츠 생산 지원 및 브랜드화 작업 등이 가능할 것이다.

넷째, 순환과 피드백을 전제로 한 자기 조절 및 순환, 생산적 관점의 독창성을 창조적 서울시라는 특정 문화도시에 접목하려는 노력과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효율성과 창조적 공간 도시자원의 축적 및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지원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자기 완결적 구조의 서울시라는 문화도시 시스템의 안정과 균형의 조율 시스템, 회복가능성(resiliency)을 극대화하는 자율적 메커니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는데, 도시 인프라의 확충과 자율적 예산집행체계의 마련과 책임, 다양한 아카이브로서의 서울시 특화 역사적 기반 콘텐츠의 축적 등 정책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역단위 특화 문화예술 등 콘텐츠 아카이브의 집단지성 형태의 오픈소스 시스템 인프라 마련 및 기존 메타DB 등 연계 종합시스템망의 조정 및 재구축이 창조적 문화도시라는 서울시의 발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 성공적인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서울시내 창의자(전문가, 프로슈머)-시장(토착기업 등)-공공(서울시 정부,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는 지식과 콘텐츠의 교류 마켓플레이스 기반을 서울시내에 마련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부가적으로 생태계의 구성 인자들 간의 거버넌스 관계가 중요하며, 발전의 전제가 됨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알려진 대로 거버넌스는 복잡, 불확실하고, 다차원적이 되는 정책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이며,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정책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계 구성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거버넌스의 정책 참여자들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각종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라는 단위지역을 놓고 보자면,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부와의 역할 관계, 서울시정에 관련되는 정부와 참여조직들-기업, 연구소, 대학, 문화관련 NGO 등 주체들-간의 분권적 기능분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구문모 (2005),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와 서울시의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제6권, 제4호, 2005, 101-120
- 라도삼 (2006), 「문화도시의 요건과 의미, 필요조건」, 『도시문제』 41권 446호, 11-25.
- 이병민 (2011), 「창조적 문화중심도시 조성전략과 문화정책 방향」, 『문화정책논총』 25(1): 7-36.
- 이순자, 장은교 (2012),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 찰스 랜드리 저, 임상오 역 (2005), 『창조도시』, 해남,
- Cooke, P. & Lazzaretti, L., Creative Cities, Cultural Clusters and Local Economic Development, Edward Elgar, 2008
- Coy, Peter, "The Creative Economy", Businessweek online : August 28, 2000 Issue
- Florida, R., 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NY: Basic Books, 2002
- Howkins, J., Creative Economy, NY: Penguin Press, 2001